

평면의 표현 한계 뛰어넘다

전주현대미술관서 이동근 개인전
생명이라는 전제 통해 음양의 세계
대입 아닌 조화·융합의 세계 격상

원로작가 이동근 화가가 지난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주현대미술관에서 '생명-A Life'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9년 만에 전주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

이 전시는 전주현대미술관의 기획초대로 열리게 됐다. 이동근 작가의 기존의 작품의 요소에 색채가 좀 더 화려해지고 우화적인 표현들이 가미되어 더욱 풍부한 작가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70세의 나이에 평면의 표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입체작품을 선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동근 작가는 1969년 전라북도미술대전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신분으로 출품해 입선하며, 화단에 발을 디뎠다. 이후 1970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미술대학 미술학과 전신) 1기생으로 입학,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970년 이후로는 극사실주의 화풍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당시 공모전에서 30여 차례 수상을 하는 등 작품적으로 크게 인정 받았다. 하지만 제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사실적인 화풍에 매료됐고 이와 같은 성향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부터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목가적이면서도 우화적인 자기 본인의 생활환경을 작업에 드러내게 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병길 미술평론가(원광대학교 교수)는 "이동근 화가의 작품은 대자연과의 명상과 음유가 탄생시킨 사물들의 우화적 표현이 엮여 있는 작품"이라며 "생명이라는 전제를 통해 음양의 세계를 대입적 관계가 아닌 조화와 융합의 세계로 격상시키면서, 작가와 주변의 모든 관계조차도 조화로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이동근 작가는 "그림이란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본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이번 작품은 정음 칠보의 작업실에 자연 환경을 통해 소재들을 이끌어냈으며,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대자연의 확장과 더불어 생명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강산 작가가 총괄기획을



원로작가 이동근씨(사진 왼쪽)가 그의 작품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맡았다. 이강산 작가는 현재 한국화가이자 독립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며 전북대학교에서 미

술학박사를 받았다. 그와 동시에 이동근 작가와는 부자(父子)기간이다. /정은성 기자



정음사국악원 아름드리 가야금 연주단이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벼고을 전통국악 경연 학생부 대상 수상

정음사국악원 아름드리 가야금반

정음시 정음사국악원 아름드리 가야금 연주단(송은경 외 8명)이 최근 김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6회 벼고을 국악제 전국 전통국악 경연대회에서 학생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사)전통문화예술진흥회와 사)한국국악협회 김제지부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대회의 기악 부문은 전국에서 20개 팀이 참가해 열린 공연을 벌인 결과 아름드리 가야금 연주단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정음사국악원 가야금반 초·중·고 연수생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가야금 연주단은 2007년 창단해 우리 음악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가야금 연주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연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이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가야금반 연수생 중 한지혜 학생은 지난 8월 정음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서 학생부 종합대상을, 홍지인 학생은 지난 10월 평택 해남 전국국악 경연대회에서 학생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야금반 장승희 교수는 "코로나19로 국악원이 장기휴관을 했으나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아 온라인 영상을 통한 연습 지도를 시도했다"며 "비대면의 불편하고 힘든 연습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잘 참여해 준 것이 이번 결과보다 더 고마운 점"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 국립합창단 초청 음악회 성료

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 이카데미홀에서 '국립합창단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음악회는 군산대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역산업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음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관객을 200명 이내로 제한했지만,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머금은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음악회는 우리나라 합창의 대중화와 합창 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현재 세계 유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국립합창단 윤의중 단장 겸 예술감독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단원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군산=남현봉 기자

'황실천하'... 전주대 최현석씨

무등미술대전서 공예부문 대상

전주대는 최현석 씨(응합디자인학과, 2019년 미술학사 졸업)가 '제36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공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등미술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총 1,449점이 출품됐다. 출품작 중에서 각 부문별로 8점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중 최현석 씨는 비너를 주제로 한 '황실천하'를 선보이며 공예부문 대상을 받았다. 황실천하는 금속공예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를 은과 보석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특히, 전통의 표현에 있어서 금빛 착색 접근을 통한 황실의 고귀함과 숭고함을 기술적으로 표현했다.

최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화려한 현대미술이 아닌 전통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전통비너연구소를 설립해 전통 비너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통 공예의 명맥을 유지하고 싶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찰민 지도교수는 "최현석 학생은 석사과정 재학 중에도 남다른 열정과 실력을 갖고 있어 재학 중에 이미 해당 대학의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졸업 후에도 이론과 실기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끊임 없이 노력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대학원에서 학습한 이론과 실기 접근을 기반으로 현대적 디자인의 다양한 재해석과 예술적 사고를 이끌어낸다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금속공예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작품 등 입상작은 18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실에 전시된다. /정은성 기자

'꿈나무 소리꾼이 떴다'

6세때부터 판소리 입문 전주 효림초 김선재군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참가 '최우수상' 수상

한 꿈나무 소리꾼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창에서 40년째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수씨의 손자인 김선재군(전주 효림초 3)이 주인공.

6세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 2017년 제18회 공주박동진 판소리대회에서 유아부장원, 2018년 제19회 공주판소리 명창·명고대회 초등부 장원, 제9회 논개 판소리 전국경연, 제4회 목담·최승희 전국판소리 대회에서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8~9일 고창 동리극약당에서 열린 '어린이 판소리 제33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



고창 동리극약당에서 열린 '어린이 판소리 제33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선재군(사진 오른쪽).

도 참가해 열띤 공연을 선보였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이 모여 왕중왕을 겨루는 이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22명의 꿈나무 소리꾼들이 모여 판소리를 열창하며 7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김군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군은 "앞으로도 더욱 소리공부에 정진해 다음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김군이 고창이 낳은 소리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이안 재연

무주군, 내년 반딧불축제서
지역 특화 유산으로 키울 듯

무주군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의 적상산 이안을 재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 이안 재연에 따른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이안 재연 행사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안 행렬에 따른 복식과 의장 고증 자료를 토대로 내년 반딧불축제 행사시 이안 재연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 이안 재연에 따른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이안 재연 행사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안 행렬에 따른 복식과 의장 고증 자료를 토대로 내년 반딧불축제 행사시 이안 재연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 이안 재연에 따른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이안 재연 행사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안 행렬에 따른 복식과 의장 고증 자료를 토대로 내년 반딧불축제 행사시 이안 재연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존해 후대에 널리 전승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선시대 사고에 실록 이안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살폈다.

과거 1634년 묘향산 사고본 이안을 테마로 잡아 학술용역을 진행했던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역사 지킴이었던 무주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실록의 이동은 엄숙한 국가 의례였다. 한양에서 이송된 실록이 무주관아에 도착하면 대규모의 환영식이 펼쳐졌다. 관아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관상감에서 정해진 날짜와 시각에 사고지로 이동했다. 관아에서 사고로 이동할 때도 의장대가 갖추어져 풍악을 울리며 행진했다.

한편,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대(태조~명종)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 사고로 이관됐다. 2021년도에는 디오라마와 반차도를 제작해 최북미술관 1층 특별전시관에 전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 작은학교로 찾아가는 가을 음악회

내달 4일까지 부안고·무봉초 등 도내 6곳에서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찾아가는 가을 음악회'를 연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안고, 무봉초, 순창여중 등 도내 6개 학교에서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농어촌 작은 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모던포크듀오 2인조 '이상한 계절', 금관악기 밴드 5인조 '아우름 브라스밴드', 성악 4인조 그룹(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성악 3인조 그룹(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타악 연주단 7인조 '타울립 예술원' 등 도내연주단이 함께 참여한다.

11일 부안고 부안고 락밴드와 '이상한 계절' 플라보'를 시작으로 16일 무주 무봉초에서는

'성악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공연', 18일 순창여중에서는 '순창여중 보컬 학생과 포크 듀오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19일 정수 천천초에서는 '해설이 있는 관악기 연주 공연'이, 27일 진안 부귀초에서는 '성악가와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공연'이, 12월 4일 임실 오수중에서는 '타악연주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작은 학교 청소년들이 다양한 음악세계를 접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친숙한 클래식 공연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곡 함께 부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을 음악회를 통해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9'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